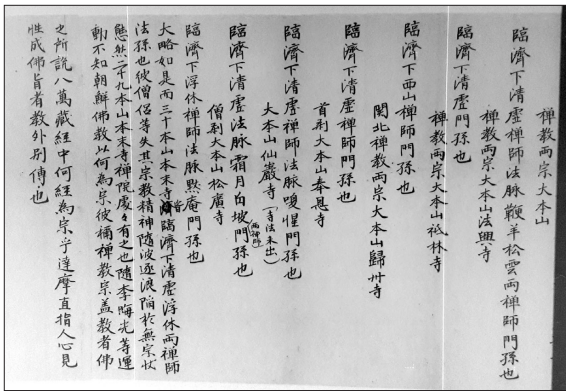


“33본산의 본말사는 임제 이래 청허·부휴의 법손”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용성 스님 편지 공개



용성 스님이 경성일보사 사장 아베에게 보낸 서간문 다섯통 중 다섯번째 편지. 각사찰의 임제 선맥을 밝히고 있다.

1910년대 일본불교에 맞서 ‘한국불교의 임제종 전통’을 설한 용성 스님의 편지글이 발견됐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최근 용성 스님이 1915년 경성일보사 사장 아베 미치이에(阿部充家, 1862~1936)에게 보낸 서간문 5통을 공개했다. 서간문은 일본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입수한 것이다.

용성 스님은 서간문을 통해 선종포교당인 ‘임제파강구소’(臨濟派講究所)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인 임제선법을 피도록 해야 한다고 그 내용을 밝혔다. 1910년 당시 불교계는 왜색불교인 원종과 이에 맞서는 임제종의 갈등이 있었다.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1912년 장사동(현 시간동)에 임제종 포교당을 세웠다. 서한에 나온 장사동의 임제파강구소는 임제종 포교당을 나와 용성 스님이 독자적인 불교 강연을 진행한 곳이다. 여기서 용성 스님이 강연한 내용은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편지들을 통해 공개됐다.

용성 스님은 서간문을 통해 당시 독립운동과 불교전통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저항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불(無佛) 거사’라는 법명을 받는 등 독실한 불자이며, 당시 일본총독부에 큰 영향을 미치던 아베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됐음이 드러난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이번 서간문은 일제시대 한국불교를 말할하려는 정책에 맞서 그 정통성을 밝힌 스님의 면모가 드러나는 자료”라며 “신념과 당당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셨던 용성 스님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간문 중 다섯 번째 편지의 번역문 요약이다. 금일 본산의 주지가 내무지방국에 출두해 이회광과 재판을 하였는데, 관리가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화급하고 신속하니, 원컨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속히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삼십본산의 본말사는 모두 임제선사 이래 청허와 부휴 두 선사의 법손이다. (이회광을 비롯한) 저 승려 등은 그 종교의 정신을 잃고서, 세속의 이익과 호르몬을 따라 무종(無宗)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스물아홉 본산의 본말사 선원은 모두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회광이 펼치는 운동을 따른다면 이는 조선의 불교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무엇을 중주로 삼겠는가. 저들이 말하는 선교종(禪敎宗)에서 교(敎)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가운데 어떤 경을 중주로 삼는가? 달마가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본래 성품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는 뜻은, 교의 별칭이로다.’

노덕현 기자

학인 스님들 ‘남한산성 의승’ 애니 다큐 만든다

청암사승가대학 12일 다큐 제작 계획 발표

학인 스님들이 애민 정신으로 남한산성 축조와 수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승군들을 조명하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화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남한산성 장경사가 지원에 나섰다.

김천 청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한산성 의승군 주제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과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다.

학인 스님들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남한산성의 소리(가칭)’으로 6분 분량의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학인 스님들이 남한산성 의승군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발심을 한 것은 학내 강의의 영향이 컸다. 스님들은 학기 중 ‘조선 불교탄압사’ 강의를 들으며, 애민 정신으로 남한산성을 축조·수비하고 불교의 명맥을 지켜낸 스님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 상덕스님은 “강의 후에 학인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의승군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면서 “그러던 중 학인 스님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의승군들의 발자취를 되짚고 대중에게 알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인 스님들은 전반적인 제작 계획과 업무

제목은 ‘남한산성의 소리(가칭)’

6분 분량 2D 애니메이션 제작

‘조선불교탄압사’ 강의 들으며

학인 스님들 ‘의승 알리기’ 발심

내년 봄 완료... 英·中文제작도

파트 분배까지 해놓은 상태다. 시나리오 감독은 2학년 혜범 스님, 그림 감독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1학년 범준 스님이 맡았다. 제작총괄은 을학승가대학원 전문 과정 해전 스님이 맡아 진행된다.

향후 스님들은 영문과 중문애니메이션도 준비하고 있으며 산성·왕릉 수비, 궁중조형 등의 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2일 청암사승가대학에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도 제작비 500만 원을 지원했다.

역을 하고도 주목받지 못한 선조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대해 학장 지형 스님은 “조선시대 의승들의 발자취를 되짚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승가 내부의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사회적으로 불교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를 미디어를 통해 전하는 포교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2일 청암사승가대학에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만원을 후원하고, 학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도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완성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며 “힘들겠지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 승군의 활약상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이제는 변화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결사추진본부, 10일 세월호 200일 토론회 개최

세월호 사고와 함께 했던 200여일 간의 불교계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자선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11월 10일 ‘세월호 200일 토론회’를 열고 종단의 활동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본부장 법일 스님은 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지원활동을 소개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주요한 활동들은 △국민적 아픔 치유를 위해 노력한 점 △불교계의 활동을 인정받은 점 △지역 본사와

많은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점 등이 성과라고 꼽았다.

또한 그간의 지원활동에서 미흡했던 점 역시 지적했다. 스님은 △자원봉사 인원이 분배가 안됨 △장기간 구호에도 교구본사 참여 미흡 △식당차가 없어 자원 활동에 어려움 등을 꼽았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정몽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해 불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안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제18대 총장 선출 본격 돌입

김희옥 현 총장·보광 스님·조의연·연기영 교수 하마평

동국대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 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장선출에 돌입했다. 총장 후보로는 현 총장인 김희옥 총장과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을 비롯해 조의연 교수, 연기영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희옥 총장은 정관계, 경제계 등의 폭넓은 인맥과 임기동안 학교발전을 이끈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동국대는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11위를 비롯해 발전기금 모금과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진행 등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원이며 15대 중앙종회 의원인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17대 총장후보로 나온 바 있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를 비롯해 중단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의연 교수는 급속한 학교발전이면서 교육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선출일정은 11월 11~21일까지 후보공모에 이어 20~21일 총장 후보 접수, 24일 총장추천위원

회 실무위 후보자격 검증, 28일 총추위의 자격 심사, 12월 4일 총장 후보자 소견발표 및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다. 후보자 추천 후 2주 안으로 이사회가 열리며 제18대 총장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일 열린 총추위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안 스님을 비롯한 25명의 총추위 위원이 선출됐다. 교원대표 12인, 직원대표 4인, 조계종대표 4인, 동문대표 2인, 사회인사대표 3인, 학부대표 1인, 대학원생대표 1인 등으로 구성됐다.

총추위원장 정안 스님은 “제18대 총장 선출은 동국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발전을 이끌 총장을 뽑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南北불교 공동으로 대각국사 다례재 연다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서

남측 천태종(총무원장 총광)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11월 6일 개성 민속여관서 만나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서 ‘영통사 북원 9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및 대각국사 제193주기 열반다례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천태종에선 실무담당 겸 사회부장인 설혜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월도 스님, 사회국장 성공 스님, 신면관 나누며하나되기 사무국장인, 조불련에선 차금철 서기장, 홍영일 신도부원, 리현숙 신도부회장과 김철용 신도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 남북합동법회에는 남측 불교도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불련도 남측 참가인원을 감안해 북측 신도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법회 후에는 관음사 참배를 비롯해 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도 관람키로 했다.

특히 천태종과 조불련은 2015년 영통사 북원 10주년을 앞두고 남북의 화해 모드에 저해되는 부분은 자제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향후 개성 일대의 성지순례길을 다시 열고, 개성 일대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미나 개최에도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천태종은 가능하면 영통사 북원 행사와 대각국사 다례재를 따로 진행하자는 제안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수행도량 보리동산 흥원사 화엄경산림 큰스님 초청법회 및 화엄경 사경

서울 흥원사(회주 동주스님)는 오는 11월 9일부터 ‘화엄경산림 큰스님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화엄경산림법회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구법기를 중심으로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을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배우게 된다.

법회는 11월 9일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6일 중범스님, 23일 각성스님의 법문이 이어지고, 11월 30일 회향 대법회가 열린다. 법회기간 중에는 화엄신중예참문에 따른 참회발원과 사경수행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흥원사는 이번 화엄산림기간 동안 선재동자가 발심하여 53선지식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 속에서

선지식 스승들의 고구정녕하신 법문과 선재동자의 간절한 구도 자세를 본받고자 주지 성오 스님이 3년여 기간 동안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 <화엄경 입법계품 - 53선지식을 찾아서>를 일차일배의 정성으로 사경하는 원력도 세웠다.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구도수행이 절실한 이때 선재동자 같이 선지식을 친견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깨달음을 구하자는 염원으로 방대한 화엄경 중 입법계품을 사경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엄경 입법계품 사경은 우리나라 사경유품 중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통일신라 황룡사 연기법사가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발원한(신라백지목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을 재현하여 나라의 번영과 만민의 안락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도 함께하고 있다.

■ 화엄경 사경교재 구입방법 :

교재 내용 ▼

- 화엄경 입법계품
- 화엄신중예참 법요집
- 화엄경사경노트 5권

■ 사경교재 세트 한 벌 : 10만원

■ 사경노트 5권 : 5만원

(우편발송시 배송비 별도)